LG-D, LED 포장재 합작법인 설립

중국 Souzhou법인 2010년 말 가동 ... 전후방 관련기업과 제휴 확대

LG디스플레이는 LED(Light Emitting Diode) 포장재 제조를 위한 합작법인을 중국에 설립하기로 했다.

중국 Souzhou 소재 합작법인은 LED 포장재 제조기업인 타이완 에버라이트전자가 60%, LCD(Liquid Crystal Display) TV 위탁 제조기업인 암트란과 LG디스플레이가 각 20%씩 출자해 총 3000만달러가 투자되며, 2010년 말부터 가동될 예정이다.

LG디스플레이는 LED 포장재 합작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부품 공급처를 확보함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2009년 우리LED의 지분투자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LED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해 온 LG디스플레이는 부품, 소재, 장비 등을 제조하는 후방산업 관련기업과 TV, IT 제품을 만드는 전방산업 관련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6/04>